

# 선거연합 연구의 한계 검토와 재분류 및 일반 이론 구성을 위한 메타 이론적 시론(試論)\*

정병기 | 영남대학교

이 글은 선거연합 연구들을 접근방법에 따라 정치제도 접근론, 유권자 접근론, 연합 행위자 접근론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고찰하고 재구성하였다. 정치제도 접근론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에 초점을 두고, 유권자 접근론은 유권자들의 지지 구조를 중심으로 하며, 연합행위자 접근론은 연합행위자의 사회적 성격 및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를 기본 요인으로 하여 분석한다. 이 접근법들의 고찰을 통하여 선거연합 연구가 분석해야 할 대상을 선거연합의 성격 및 결과와 선거연합의 영향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선거연합의 성격과 결과는 선거연합의 형성·촉진이나 회피·해체,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와 전략, 선거연합의 효과이며, 선거연합의 영향 요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같은 제도적 요인, 균열의 성격과 다차원성 및 정당체제 등의 구조적 요인, 행위자의 사회적 존재 형태와 연합의 목적 및 행위자의 내·외부적 특징 같은 행위자적 요인이다.

**주제어:** 선거연합 이론, 정치제도 접근론, 유권자 접근론, 연합행위자 접근론, 연합정치

## I. 서론

지난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연합 정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시기와 형태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정당 통합이나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 한국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소한 24번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져 왔고,<sup>1)</sup> DJP 연합이라는 통치연합을 제외하면 특히 선거연합이 다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2A-B00013).

1) 김범수(2007, 81)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모두 20번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졌고, 여기

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권력을 나눌 수 없는 대통령중심제와 배타적 지역주의 및 전략적 투표의 부재 등 연합정치를 회피하는 요인들로 알려진 이른바 연합 회피 요인들(장훈 2001; Ström and Leipart 1993 참조)이 이제는 연합 촉진 요인들로 바뀐 형국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선거연합이 결성되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골더(Golder 2006, 3)에 따르면, 1946~2002년간 23개 선진 민주 국가에서 선거연합은 약 240개가 결성되어 매우 흔한 정치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대부분 의회중심제 정부 형태를 가진 유럽 국가들 외 다른 많은 나라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1996~2009년 동안 63개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의 687개 연도별 사례들 중 310개년(45.1%)에 연합정부가 구성되었다(홍재우 2012, 92; 홍재우 외 2012, 33). 이 경우 선거연합을 통하여 연합정부가 구성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선거연합 결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연합의 비중도 낮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점차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연립정부 구성과 같은 통치연합과 마찬가지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도 민주주의 공고화와 좋은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다. 곧, 선거연합을 포함한 연합정치는 민주적 게임에 충실한 정당들 간 정치적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이정진 2003, 136; Burton et al. 1992), 전국 혹은 지역사회의 이슈에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성대·홍재우 2012, 49; 홍재우 외 2012, 94; Cheibub 2002; Cheibub and Limongi 2002).

이와 같이 선거연합은 세계 모든 유형의 정치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와 정부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범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었다(Golder 2005, 645; 2006, 2). 곧, 선거연합 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야 할 현실적·논리적 필요성이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연합과 달리 선거연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고, 최근 2000년대 중반에 골더가 이 분야에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전까지 이렇다할 전문적 연구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듀베르저(Duverger)가 1959년에 정당 연구의 맥락에서 언급한 이후 선거연합이 사실상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학술적 연

---

에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각종 재·보궐 선거들을 합하면 최소한 총 24번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가 촉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연합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어도 주로 한 국가나 특정 선거 사례에 국한되어 일반 이론을 제공하지 못하였다(Golder 2005, 645; 2006, 4-5). 골더가 처음 일반 이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하였지만, 그도 역시 시도와 달리 기존 이론들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일반 이론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이를 위한 새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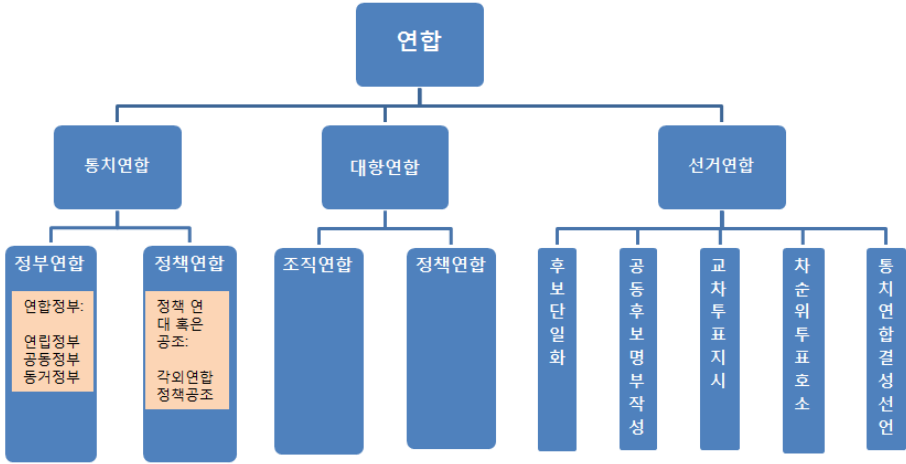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은 비록 기존 연구들이 특정 국가와 선거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연구들의 합리적 핵심을 파악하여 분류하고 그 한계들을 고찰하여 보편성을 도출함으로써 일반 이론 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선거연합에 적용될 수 있는 공리와 같은 일반 이론은 다양한 현상들의 특수성을 설명하기보다 제한된 일부분에 대한 일반성을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가지 보편적 공리를 도출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상세히 고찰하고 새로운 분류를 통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선거연합 이론이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논문은 연합정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 및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선거연합 연구들이 연립정부같은 통치연합 연구 안에서 진행되면서 연합정치의 다양한 개념들이 제대로 구분되어 정의되지 않았고 기존연구 검토와 이론 분류도 선거연합에 특화되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정의와 분류를 토대로 각 연구와 이론들의 논리와 성과 및 한계를 차례로 짚어보고 보완되어야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각 이론별로 메타 이론적 구성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각 이론 유형들을 종합한 후 선거연합 연구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이론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메타 이론적 시론(試論)을 제시한다.

## II. 연합정치의 개념 및 유형과 선거연합 연구의 검토 및 이론 분류

### 1. 연합정치의 개념과 유형

선거연합은 연합정치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합정치의 유형들을 모두 개괄하고 정의함으로써 다른 유형들과 구별되는 선거연합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연합정치는 각종 정치행위자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정치 활



〈그림 1〉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 분류

동을 수행하는 연합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합정치 이론들은 그 논의의 대상을 정당이나 후보에 한정하였지만, 이 글에서 연합정치의 행위자는 정당같은 정치사회 행위자들뿐 아니라 사회단체 같은 시민사회 행위자들까지 포함한다.<sup>2)</sup> 대표적인 예로 2004년 한국 총선연대처럼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도 연합정치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사회는 2012년 대선에서 활동한 ‘희망과 대안’이나 ‘민주통합시민행동’처럼 비록 정당의 조직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정치 활동을 목표로 조직된 정치단체들을 포함한다. 연합정치의 목적도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정부 구성이나 정권 장악과 무관하게 의회에서 야당들이 정부를 견제하거나 사회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연합정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합정치는 〈그림 1〉에서 보듯이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과 대항연합(opposing coalition) 및 선거연합(electoral coalition)으로 구분한다. 통치연합은 선거 이후

2)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구별은 스테판(Stepan 1988, 3-4)의 정의를 따르지만 정치사회에 정치단체들을 포함한다. 곧,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 운동과 사회 조직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간을 뜻하고, 정치사회는 정당, 정치단체, 선거, 선거 규칙, 정치 리더십, 정당 연합, 의회로 구성되며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이 공공 권력과 국가 기구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쟁을 벌이는 장을 의미한다.

정부 구성이나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하여 구성되는 연합을 말하고, 대항연합은 역시 선거 이후 구성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권 장악이 목표가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이나 정치세력들의 연합(checking coali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거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선거 이전에 구성되는 연합을 지칭한다.

통치연합은 다시 정부연합(government coalition)과 정책연합(policy coalition)으로 나눈다. 그 중 정부연합은 정부형태에 따라 달리 불리는 연합정부(coalescing government)를 의미하며, 의회중심제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이원정부제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 대통령중심제의 공동정부(joint government)를 포괄한다. 정책연합은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지지 연합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0년대 및 199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이탈리아공산당 PCI와 재건공산당 PRC)처럼 캐스팅보트를 가진 정당이 정부에 입각하지 않으면서 자당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소수 정부 출범을 가능케 하는 각외연합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의회 내 정당들 간 다양한 정책 공조가 있다. 그리고 정부연합과 정책연합에서 연합행위자는 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정치가나 비정당 정치단체 혹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항연합도 조직연합과 정책연합으로 나눈다. 조직연합은 여당과 정부에 대항하거나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의회 안팎에서 정당 등 여러 정치행위자들이 공동 조직체를 구성한 연합을 말하며, 정책연합은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거나 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정당 등 여러 정치행위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지 않고 연대하거나 공조하는 연합을 의미한다. 실제 이 두 연합 형태도 의회 안팎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연합은 ‘공개적으로 교차투표 지시, 차순위 투표 호소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선거 캠페인을 조정하거나, 단일 후보 혹은 공동 후보명부나 선거 이후 공동 통치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에서 독립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정당 등 여러 정치행위자들의 연합’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정당 외 무소속 후보나 비정당 정치·사회단체 등의 연합 가능성을 배제한 골더(2005, 652; 2006, 12)의 정의를 수정한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한국과 같은 경우, 정당이 아닌 정치·사회단체들이 종종 선거연합에 가입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은 유용하다. 선거연합의 유형은 그 구체적 방식에 따라 후보 단일화, 공동 후보명부 작성, 교차투표 지시, 차순위 투표 호소, 통치연합 결성 선언 등으로 구분된다(Golder 2006; 한상익 2012, 61; 홍재우 2012, 95). 여기서 비록 선거 승리를 위하여 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 통합은 선거연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단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된 경우는 더 이상 여러 정치행위자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단일 행위자로 정치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 2. 선거연합 연구의 검토와 이론 재분류

실제 연합정치는 대부분 정당정치가 발달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구성을 위하여 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정부연합의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연합정치 연구도 주로 정부연합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므로 선거 이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sup>4)</sup> 물론 1980년대 이후에는 드물지만 선거연합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골더에 의하여 그 기초가 닦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골더(2005, 644)에 따르면, 이 연구들도 연합 행위의 공식 모델에 선거연합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였거나(대표적으로 Baron and Ferejohn 1989; Laver and Shepsle 1990; Austin-Smith and Banks 1990; Diermeier et al. 2003), 특정 이슈와 국가에 한정함으로써 비교연구를 통한 일반 이론 구축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대표적으로 Mitchell 1999; Hanley 1999; Saalfeld 2000). 하지만 골더도 역시 연합정치의 정밀한 분류와 일반 이론 구축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집권 후 공직과 정책의 배분이 연합 정당들의 의석률에 비례한다는 갠슨의 법칙(Gamson's Law)을 확대 발전시킨 캐롤과 콕스(Carroll and Cox 2007), 선거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대응을 연구한 그시웬드와 후그(Gschwend and Hooghe 2008)의 연구 및 전통적인 공직 및 정책 중심 모델을 넘어 제도적·문화적 차원을 보완하여 정치적 심장 모델(political heart model)을 제시한 디버스(Debus 2007)가 선거연합 이론을 확대하고 새로운 관심 영역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도 선거연합이 일정한 대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된다는 비비례성 가설(disproportionality hypothesis)과 장차 성립될

3) 연합정치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1960년대 갠슨(Gamson 1961a; 1961b)과 라이커(Riker 1962)의 연구 및 1970년대의 액셀로드(Axelrod 1970), 드 스완(De Swaan 1973), 다드(Dodd 1976) 등이 대표적이다.

4) 통치연합의 하나인 정책연합과 두 대항연합도 의회 정치 연구를 통하여 일정하게 분석되었지만 연합정치의 맥락에서 핵심 주제로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선거연합이고 위의 개념 분류도 선거연합 분석을 위한 개념적 전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연합정치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정부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형성된다는 신호 가설(signaling hypothesis)을 검증 혹은 반증하거나 이를 확대 적용시키는 수준이 아니면, 역시 선거연합을 정부연합과 연관시켜 연구한 과거 경향의 일정한 반복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도 선거연합에 대한 연구는 서구 연합이론의 적용에 머물거나 이론적 논의 자체가 부족하여 선거연합 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 연구는 2012년에 발표된 조성대, 홍재우, 한상익의 논문 세 편에 불과하다(홍재우 2012; 한상익 2012; 조성대·홍재우 2012).<sup>5)</sup> 이 연구들은 연합정치 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이론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소개하고 한국적 수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사례 연구에 국한되거나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선거연합 일반 이론의 수립을 도모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선거연합을 직접 다루고 그 이론 형성에 기여한 기존 논의들은 2000년대에 들어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존 이론들은 정부연합 연구의 틀을 이어받아 선거연합 연구도 공직 접근론과 정책 접근론으로 분류하며, 때로는 자원 접근론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이론들은 의석수나 정책과 같은 정치 행위자들의 자원이나 이념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선거연합의 경우에는 득표 제고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 혹은 확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정해지기 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약이 정해지기 전에 결성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이 분류는 정부연합 연구에는 적절하지만 선거연합 연구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밖에 협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경향들을 과정 접근론으로 따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연합의 목적이나 결과로 보면 여전히 공직, 정책, 자원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 예외적으로 골더(Golder 2006)는 기존 이론들을 비비례성 가설(disproportionality hypothesis)과 신호 가설(signaling hypothesis)로 엮어 정당 수를 중요한 변수로 추가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분류라기보다 기존 연구에서 경시된

5) 그밖에 신기현의 연구(1984)와 진영재의 연구(1999)는 이미 오래 전에 선거연합에 관하여 이론적 관심을 보인 선구적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존의 연합이론 전반을 교과서적으로 정리하거나, 선거연합보다 유효정당 수 계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선거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성대는 2013년에도 선거연합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대선 선거연합에 대한 후보, 균열구조, 선거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거연합보다는 제3후보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선거연합 이론들은 다루지 않았다.



변수를 추가하여 설명을 시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거연합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기존 선거연합 연구들을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선거연합 결성의 원인, 목적, 효과 등 연구 목표가 아니라, 분석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곧, 원인 연구, 목적 연구, 효과 연구처럼 연구 목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연합이라는 분석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환경이나 행위자 등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각 연구들이 초점을 두는 분석 대상이 중복되어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이론들이 원인, 목적, 효과를 아우르는 선거연합의 총체적 성격들 중 어느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느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정치제도 접근론, 유권자 접근론, 연합행위자 접근론이라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정치제도 접근론은 비비례성 가설이나 정부형태 연구와 같이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에 따라 선거연합을 설명하는 연구들이며, 유권자 접근론은 유권자의 지지 구조에 초점을 두고 선거연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그리고 연합행위자 접근론은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등 연합을 결성하는 정치행위자들의 사회적 존재 형태와 행위를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연구하는 입장을 말한다.

그 중 유권자 접근론은 정부연합 연구 유형의 하나인 정책 접근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유권자들의 지지 경향에 따라 선거연합이 결정되므로 정치행위자들의 정책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합행위자 접근론과도 혼동될 수 있다. 정책은 정치행위자들의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 접근론은 유권자들의 지지 경향을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구조 접근방법에 국한한다. 연합행위자 접근론도 과정 접근론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연합 협상을 중시하는 과정 접근론은 협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른 모든 유형과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 중심 연구들 중 유권자 변수를 중시하지 않고 정치행위자들의 사회적 존재 형태와 행위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만을 연합행위자 접근론에 포함시킨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많은 연구들이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 어느 한 이론 유형으로만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 유형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일반 이론 구성을 위하여 설정한 이념형으로서 기능한다. 다음에서는 이 이론 유형들의 기존 한계를 살펴보고 이들을 메타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한다.



### III. 선거연합 이론의 한계와 메타 이론적 재구성

#### 1. 정치제도 접근론

선거연합과 관련하여 정치제도는 대통령중심제나 의회중심제 같은 정부 형태와 비례대표제나 다수대표제 같은 선거제도를 의미한다. 정치제도는 주로 선거연합 결성의 배경으로 작용하므로 선거연합 연구에서 정치제도 자체의 영향만을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비비례성 가설에 의존하였으며, 이것은 골더(2005; 2006)에게 와서야 실증적으로 부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실제 다수대표제 국가에서보다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선거연합이 더 많이 결성되었다(Golder 2006, 30). 특히 정당정치 역사가 오래 된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합정치는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며 선거연합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탈리아 ‘제2공화국 제2기’(2005년 이후)의 경우 비례대표제로 다시 복귀하였음에도 선거연합 정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정병기 2012a 참조).

하지만 비비례성 가설의 역도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다.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선거연합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더(2005, 654, 657)에 따르면 비례대표제에서도 봉쇄조항과 정당의 수를 곱한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다수대표제에서도 정당 수 감소 경향이 나타나 선거연합이 줄어들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에서도 정당 수가 많아지는 반면 봉쇄조항이 높아지면 정당 수가 줄어들어 선거연합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더는 정당 수와 봉쇄조항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본다.

그밖에 공직 접근론과 달리 정책 접근론도 비비례성 가설과 그 역에 대하여 중요한 제약 조건을 제시하였다. 공직 접근론은 공직 배분에 유리하게 연합을 결성하는 경향을 강조하므로 선거제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중시하지만, 정책 접근론은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상 양 극단에 위치한 정치행위자들이 연합하는 교량 연합(bridge coalition)이 쉽게 결성되지 않는 것처럼 정당들이 당의 이념이나 정책의 인접성에 따라 연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비례성 가설은 다른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진 조건부론만 지지될 수 있다.

한편,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중심제는 권력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선거연합 회피

요인으로 다루어졌다(장훈 2001, 118; 조성대·홍재우 2012, 31 참조). 그러나 이것은 비비례성 가설과도 모순된다. 비비례성 가설은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의 성격이 약하고 다수대표의 성격이 강할수록 선거연합이 촉진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수대표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비례성 가설로 보자면 대통령중심제는 선거연합을 회피하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프랑스 대선에서 선거연합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실례이며, 실제 대통령중심제에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선거연합을 비롯한 연합정치가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연구들이 있다(조성대 2012; 조성대·홍재우 2012 참조).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이러한 오류는 라이커(1962) 등 정부연합 초기 연구들인 공직 접근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즉, 연합 형성의 목적을 공직 배분에 둠으로써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중심제 정부 형태에서는 연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가정을 묵시적이지만 기본 전제로 한다. 또한 액셀로드(1970) 등 정책 접근론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대개 이 관점에 입각하여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의회중심제 국가인 일본과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선거연합을 비교 연구한 김기석(2003)과 한국의 정부 형태에서 연합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한 조성대·홍재우(2012) 및 선거법이라는 게임의 규칙 하에서 전개되는 한국 선거연합을 연구한 홍재우(2012) 등이 정치제도 접근론을 사용하거나 이론적 배경으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선거연합이 더 이상 의회중심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형태든 선거제도든 정치제도가 선거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제도 접근론은 선거연합에 미치는 정치제도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방법론이지만, 다른 제약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만 그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또한 이 접근론은 선거연합의 형성이나 촉진 혹은 회피나 해체 요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지만, 그 전략이나 결속 강도 및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제약 조건들을 열어두어 유권자의 지지 구조와 연합행위자의 행위를 고려하고 선거연합의 전략과 결속 강도 및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2. 유권자 접근론

유권자 접근론은 투표 경향이라는 유권자들의 지지 구조에 초점을 두는 구조 접근방법을 말한다. 이 지지 구조는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의미하는 균열 구조와 그에 따라 형성되는 정당체제를 포괄한다. 골더(2005)가 언급한 신호 가설에 따른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다. 곧, 연합하려는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정부 구성에 대한 신호(signal)를 강하게 보낼수록 선거연합이 촉진된다는 것이다.<sup>6)</sup>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연합 행위자들의 신호 발신에 초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 연합을 촉진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유권자의 선택은 지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정한 상황에서 이 구조는 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정책 접근법에 따른 연구들도 대개 유권자 접근론에 속한다(Axelrod 1970 등).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들이 연합한다면, 이것은 유권자들의 지지 구조에 따라 연합이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들 간 경합성에 초점을 두거나(Blais and Indridason 2007; 도모연 2012 등) 정당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분석들(손성민·김준석 2012)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내 경합이 치열하여 적은 득표 수 차이로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을 때 선거연합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선택의 구조가 경합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경쟁력도 유권자들의 지지 경향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정당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당체제와 선거연합의 관계를 논하는 연구도 이와 유사하다. 정당 수는 유권자들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그에 따른 균열 구조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더(2006)도 선거연합 형성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유권자 접근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가 지적하는 선거연합 형성의 유리한 상황은 연합 정당들 간 이데올로기 거리가 가까울 때, 연합 규모가 크지만 아주 크지 않을 때, 연합 정당들의 크기가 유사할 때, 정당체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극단화되어 있고 선거제도가 비비례제일 때

6) 홍재우(2012)는 골더(Golder 2005)가 비비례성 가설은 증명하였지만 신호 가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골더는 신호 가설의 정당 신호를 유효정당 수로 대체하였는데, 유효정당을 정당의 신호로 쉽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골더가 조작적 정의에 실패하여 추상화의 사다리를 잘못 타고 내려왔다고 비판하였다(홍재우 2012, 97, 각주 3).

(Golder 2006, 9)인 까닭이다. 물론 선거제도가 비비례적일 경우도 거론하므로 정치제도 접근법에도 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당 수라는 요소에 의하여 다시 크게 제약되므로 부차적인 요인으로 취급된다.

1900년 이래 미국 대선 예비선거를 분석한 갠슨(Gamson)의 1962년 논문도 유권자 접근론에 속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거연합은 대의원들의 다수가 다른 후보로 지지를 바꾸어 일정 기간 동안 이 지지를 유지할 때 형성된다. 즉, 유권자들의 지지 구조가 변경되어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할 때 연합이 결성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주목하여 연합정치를 분석한 사례(이정진 2003)도 있으며, 그밖에 정당체제와 선거연합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세대별 투표 경향과 보수-진보의 이념 변수도 중요하게 다룬 연구가 있다(정병기 2012b).

디버스(2007)의 정치적 심장 모델(political heart model)도 중요한 유권자 접근론이다. 디버스는 연합행위자의 성격을 다양하게 파악하였지만 그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은 균열 구조의 다차원성에 기반한 정치적 심장의 존재와 성격이었다. 그의 이론에서 정치적 심장은 특정 스펙트럼 상에서 최대 다수의식 정당이나 이념적 중도 위치에 있어 연합의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말한다. 모든 이슈 축 혹은 균열 축이 하나의 중심과 연결되어 하나만 존재하는 중심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중심'(structurally stable core)이라 하고, 두 개 이상 존재하는 중심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중심'(structurally unstable core)이라 부른다(Debus 2007, 101). 이 이론은 유권자 지지 경향에 따른 균열 구조가 중첩되는 정도에 따라 선거연합의 형성과 성격을 설명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그쉬웬드와 후그(2008)는 유권자 접근론을 사용하여 실제 유권자들의 성격에 따라 선거연합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험하기도 하였다. 1255명의 벨기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은 연합 파트너에 대한 호오, 연합 파트너들 간 이데올로기적 수렴, 기존 선호 정당의 크기, 특정 후보의 매력에 따른 투표 행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무엇보다 연합 파트너에 대한 호오가 이데올로기 거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과, 정당 크기에 따라 그 지지자들의 연합 잔류 여부가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비록 대학생이라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선거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구체적 반응을 최초로 실험한 연구로서 유권자 접근론뿐 아니라 선거연합 연구 전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의 잔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선거연합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해 선거연합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유권자 접근론은 지지 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에 천착함으로써 정치제도 접근론에 비하여 선거연합의 형성과 회피를 설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효과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구조적 요인은 미리 결정되어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음으로써 선거연합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균열 구조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사회적 표출과 정치적 표출의 차이를 보지 못함으로써 연합행위자들을 정당에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균열 구조와 선거연합 전략의 관계를 경시하고 또 그로 인하여 연합 결속의 강도를 고려하는 데 실패하였다.

우선, 균열은 정치화의 정도에 따라 사회균열, 정치균열, 정당균열을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균열은 고유한 사회적 특징에 따른 갈등 잠재력을 가진 사회 집단이 사회적 갈등 차원에서만 구분되거나 형성된 균열을 말하고, 정치균열은 이 사회집단이 정치적 갈등 집단으로 결집되고 전환하지만 정당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은 균열을 의미하는 반면, 정당균열은 정치적 갈등 집단이 집단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relevant) 정당으로 발전한 균열을 지칭한다(정병기 2012b, 70 참조). 이와 같이 정치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균열 개념은 세 단계에서 모두 그 갈등이 심화될 때 정당뿐 아니라 사회단체와 비정당 정치단체들도 선거연합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유권자 접근론은 균열 구조의 다차원성을 연합정치의 전략과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물론 선거연합의 전략은 연합행위자 접근론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와 관계될 뿐 아니라 균열 구조를 중요한 결정 변수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 접근론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 접근론은 정치제도 접근론과 마찬가지로 이 인과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았다.

선거연합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구사되는 전략은 연대전략(solidarity strategy)과 전선전략(front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을 대하는 전선전략과 동조 세력을 대하는 연대전략은 때로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균열 구조가 단선적이어서 단일 이슈가 지배적이라면, 양대 정당 혹은 진영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이때는 연대전략보다는 전선전략이 중요해진다. 적과 대치하면서 그와 다른 자기 진영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균열 구조가 다차원적이어서 지배적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다양한 정치·사회세력들이 형성되어 복잡한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형성해내는 연대전략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독재-민주 구도가 점차 사라지고 지역주의를 포함하여 균열구조와 이슈 구성이 다차원적으로 변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은 유용하다.

### 3. 연합행위자 접근론

연합행위자 접근론은 정치제도를 정해진 것으로 보고 유권자 지지 구조와 상관없이 연합행위자의 연합 행위에 따라 연합이 결성되며 유권자들은 이에 반응할 뿐이라고 가정한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연합은 정당 지도자가 결정하고 지지자들은 오로지 그 결정에 반응하는 데 불과하다는 호프만-랑에(Hoffmann-Lange 1986)의 주장이다. 그 이유로는 지도자들이 정당 내 정치 변화를 더 잘 알아서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하고 정당 의사 결정에 선행하는 여론 형성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는 점을 든다(Hoffmann-Lange 1986, 67).

기존의 연합행위자 접근론이 설정하는 연합행위자들은 정당과 후보로 압축되며, 연합행위자 요소는 정당이나 후보의 적대감 같은 상호 관계와 조직 행위자 내부의 수평적·수직적 권력 관계 같은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한다. 연합행위자 접근론이 정치제도 접근론과 유권자 접근론과 다른 또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더 천착하는 과정 중심론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직 접근법이 정치제도 접근론의 비비례성 가설의 제도적 배경을 전제하지만, 게임 이론을 통하여 선거연합 형성의 가능성을 논하는 점에서는 연합행위자 접근론에 속한다. 레이버(Laver 1986)는 공직 접근법처럼 게임 이론을 사용하는 선거연합 연구들을 연역적(deductive)인 형식 이론(formal theories)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 형식 이론들의 선협적인 핵심 전제는 ① 연합 게임의 행위자들은 단일한 협상체로서 다루어지는 통합된 정당이고, ② 정부연합은 입법부의 다수를 획득해야 하며, ③ 정당들은 정권 장악과 기본 정책 목표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최소한 한 가지를 추구하지만 전자가 후자의 전제가 되고, ④ 모든 승리 연합은 정부연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어떤 연합들은 그 성립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Laver 1986, 34).

갠슨(1962, 157-158)의 경우도 이 이론들의 이론적 전제를 ① 각자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셋 이상의 행위자가 존재하고, ② 어떤 단일 대안도 모든 참가자들의 보상을 극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③ 어떠한 참가자도 독재 권력을 보유하지 않아 누구도 독자적으로 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④ 어떠한 참가자도 비토권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승리 연합에 포함되는 행위자가 없어야 한다고 설정한다.

다시 말해, 연합행위자 접근법은 자유 의지에 따라 연합 협상에 참가하고 연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일한 행위자를 가정한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제도적 혹은 지지구조적 조건도 이들의 행위를 제약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며 심지어는 연합의 다양한 목표의 존재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는다. 곧, 형식 이론으로서의 연합행위자 이론은 장차 구성될 연합 정부의 구성원 정당, 연합 정당들 사이의 내각 자리 배분, 연합 협상의 결과인 정책 패키지 등이 모두 주어진 상태 혹은 갖추어진 체제 내에서 진행되는 연합 게임이라는 합리적 선택 상황을 가정하므로 정적(static)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Laver 1986, 33).

그러나 형식 이론으로서의 연합행위자 이론은 그 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선험적 전제를 통하여 주어진 조건 하에서(ceteris paribus) 일반 공리를 도출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합정치의 현실에서 연합행위자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연합 행위자들 간의 관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연합의 목적도 공직 추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곧, 정당 내부의 권력 관계에 따라 정당의 의사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 정당들 간의 적대감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며(Laver 1986, 36, 40-41), 장기적 득표 제고를 위하여 연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형식 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연합행위자를 정당에 한정함으로써 다수대표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후보 요소와 그 밖의 다른 연합행위자를 염두에 두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실의 구체적인 예는 이탈리아에서 교량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 자민당(FDP)-기민/기사연(CDU/CSU) 진영과 사민당(SPD)-녹색당(Bündnis 90-Grüne) 진영이 항상적으로 대립하며, 네덜란드에서 노동당(PvdA)과 자민당(VVD)이 상호 연정을 거부해 온 역사로 나타난다(Debus 2007, 47-69 참조).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특정 대선 후보자들 간의 상호 적대감은 연합 회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물론 연합행위자 접근론을 다른 접근론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단점들을 보완한 사례도 있다. 특히 골더(2006)가 대표적인데, 선거연합 형성의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유권자 접근론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협상 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연합행위자 접근론을 사용한다. 곧, 골더는 이른바 골더 모델이라는 협상 게임(세 명이지만 한 명은 참가하지 않음)을 통하여 연합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B의 유보 가격(reservation price: 연합하지 않을 때 얻는 기대 효용)이 첫 번째 협상 전체 파이에서 정당 A의 유보 가격을 뺀 값보다 크면( $R_b > \Omega^1 - R_A$ ) 어떤 정당도 연합을 제안하지 않지만, 다른 두 경우( $R_b < \Omega^2 - R_A$ 와  $\Omega^2 - R_A \leq R_b \leq \Omega^1 - R_A$ )에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sup>7)</sup>이 이

7) 게임 이론에서 각 참여자(Player)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



루어져 연합이 성사된다는 것이다(Golder 2006, 48-53). 상술한 바와 같이 골더는 유권자 접근론을 통하여 여러 장치들을 묶으로써 이 협상 게임 분석에서 형식 이론적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골더도 연합 목적의 다양성이나 균열 구조에 따른 연합행위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는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합 결속의 강도와 연합의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sup>8)</sup> 다른 접근론을 통하여 보완하였지만 그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합행위자 접근론도 다른 접근론들을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접근론 자체로도 연합행위자의 성격과 상호 관계의 다양성 및 연합 목적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연합 전략과 연합 결속의 강도를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sup>9)</sup>

#### IV. 결론

본고에서는 선거연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정치제도 접근론과 유권자 접근론 및 연합행위자 접근론으로 분류하였다. 각 접근론이 선거연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주요 요인들은 정치제도 접근론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 유권자 접근론에서 유권자 지지구조, 연합행위자 접근론에서 연합행위자의 자유의지와 사회적 존재 형태 및 그에 따른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접근론들의 주요 주장도 달리 나타났다. 우선, 정치제도 접근론은 주로 비비례성 가설을 옹호하거나 대통령중심제를 선거연합 회피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직 접근론과 정책 접근론이 설정한 제도적 전제들도 이와 관련된다. 유권자 접근론은 신호 가설을 이용

---

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집합을 말한다.

- 8) 골더 이론의 연합 강도 경시에 대한 비판은 홍재우(2012, 96-97)가 잘 제시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 정의한 선거연합의 유형들(후보단일화, 공동후보명부 작성, 교차투표 지시, 차순위투표 지시, 통치연합 결성 선언)을 홍재우는 연합의 전략으로 보고 있어 그가 말하는 강도는 전략의 강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전략은 연대전략과 전선전략을 의미하므로, 강도는 선거연합 결속의 강도를 말한다. 곧, 선거연합 유형들을 선거연합 결속의 강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9) 이러한 시도는 다행히 최근 사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론적 종합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정병기 2012a; 2012b; Golder 2006; 장훈 2001; 홍재우 2012 등).

하거나 정치적 심장 이론을 주장하는 경우 혹은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강조하는 정책 접근론이나 정당체제와의 관계를 논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었으며, 골더의 선거연합 형성 요인 설명에서도 나타났다. 연합행위자 접근론은 공직 접근론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고, 후보들 및 정당들 간 적대감의 중시 및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한 형식 이론들로 현상하였다.

각 이론들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내부에서 결함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들도 보였다. 또한 각 접근론들을 결합하여 개별적 결함들을 종합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이론적 종합으로서 부족한 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제도 접근론은 제도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 제도들의 영향을 제약하는 다른 구조적, 행위자적 요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유권자 접근론은 구조적 요인을 잘 파악하였지만 균열의 다양성, 연합의 전략과 연합행위자의 자유의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편 연합행위자 접근론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공리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과정을 밟고 있지만, 역시 균열 구조에 따른 연합행위자의 다양성을 경시하고 연합 목적의 다양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접근론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거나 경시한 선거연합 정치의 결과로는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와 전략이다. 그리고 선거연합의 형성, 회피, 효과, 강도 및 전략을 종속변수로 할 때 역시 간과하거나 경시한 독립변수들은 균열의 성격과 다차원성, 정당 내부 요인 및 연합의 목적이다.

따라서 선거연합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거연합의 성격 및 결과와 그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거연합의 성격과 결과

- 선거연합의 형성 · 촉진이나 회피 · 해체
-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와 전략
- 선거연합의 효과

### 2) 선거연합의 영향 요인

- 제도적 요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 구조적 요인: 균열의 성격과 다차원성, 정당체제
- 행위자적 요인: 행위자의 사회적 존재 형태, 연합의 목적, 행위자 외부 요인, 행위자 내부 요인

우선, 선거연합의 성격과 결과는 선거연합의 형성 혹은 촉진, 선거연합의 회피 혹은 해체,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와 전략, 선거연합의 효과를 말한다. 선거연합의 형성 혹은 촉진은 선거연합이 처음 형성되는 경우나 형성된 선거연합이 확대되는 경향이며, 선거연합의 회피 혹은 해체는 선거연합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나 이전 선거에서 형성되어 유지되어 온 선거연합이 차기 선거에 즈음하여 해체되는 경향이다. 선거연합의 결속 강도는 선거연합의 다섯 가지 유형(후보단일화, 공동후보명부 작성, 교차투표 지시, 차순위투표 지시, 통치연합 결성 선언)을 결속 강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그 결속 강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연합의 전략은 형성된 선거연합이 전선 전략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연대 전략을 사용하는가와 관련되며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도 의미한다. 끝으로 선거연합의 효과는 선거연합이 연합 구성 정당들의 득표율 제고나 연합정당들 간 이데올로기적 수렴에 과연 혹은 얼마나 기여하느냐의 문제다.

선거연합의 영향 요인 중 제도적 요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라는 오랜 연구 대상을 뜻한다. 반면, 유권자의 지지 구조를 말하는 구조적 요인은 정당 수와 정당들 간 이데올로기 거리 및 경쟁성을 의미하는 정당들 간 관계구조 외에도 사회균열, 정치균열, 정당균열이라는 균열의 성격과 이 균열들의 다차원성 여부와 정도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괄한다. 행위자적 요인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단일한 행위자로서 정당을 가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행위자의 사회적 존재 형태, 연합의 목적, 정당 내·외부 요인이라는 최근 등장한 연구 대상이나 전혀 새로운 연구 대상들을 포함한다. 연합행위자의 사회적 존재 형태는 연합행위자가 정당, 후보, 비정당 정치단체, 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문제, 즉 어떤 형태의 행위자인가를 의미하고, 연합의 목적은 공직 추구하고 정책 추구뿐 아니라 영향력 행사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득표율 혹은 영향력 제고를 포함한다. 정당 외부 요인은 정당체제 이외 후보 및 정당들의 친밀감이나 적대감을 말하고, 정당 내부 요인은 중앙당과 지방당의 관계 및 파편화나 집중화 정도를 포함한 당내 수평적·수직적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선거연합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다만 선거연합의 강도와 전략은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때에는 다른 종속변수들에 대한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균열의 성격을 논할 때 언급한 것처럼 균열의 성격과 다차원성이 연합의 목적과 행위자의 사회적 존재 형태 같은 연합행위자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이들의 관계가 다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재설정된다. 다시 말해 거시적 관점에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연구할 수도 있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이 종속변수들 내에서는 독립변수들 내에서도 새로운 독립변수-종속변수 관계

를 설정하여 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부분의 공리를 벗어나는 일반 이론이라면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정 부분의 공리는 일반 이론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에 기반하며, 일반 이론들은 다시 메타 이론적 비판을 통하여 도출 및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에 기반한다. 따라서 선거연합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를 천착하여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해 일반 이론 토대 구축에 기여하려는 이 논문은 메타 이론적 시론(試論)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일반 이론의 구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알리바이이기도 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투고일 2013년 11월 26일

심사일 2014년 1월 8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3일

## 참고문헌

- 김기석. 2003.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1990년대의 한국과 일본.” 『국제정치논총』 43집 2호, 151-174.
- 김범수. 2010.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동향과 전망』 80호, 77-105.
- 도묘연. 2012. “기초의회 정당구도와 선거연합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5회 시·군·구 선거연합을 사례로.” 『21세기정치학회보』 22집 3호, 239-265.
- 손성민·김준석. 2012. “후보 단일화 그리고 ‘권력나누기’의 메커니즘: 한국 대통령 선거연합 형성의 신호게임(Signaling Game) 접근.” 『한국정당학회보』 11집 1호, 113-138.
- 신기현. 1984. “연립이론과 연립형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1집(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3-165.
- 이정진. 2003. “정당연합과 지역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19집 3호, 111-138.
- 장훈. 2001.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107-127.
- 정병기. 2012a. “이탈리아 ‘제2공화국’ 선거연합 정치의 주요 요인과 특징.” 『한국정치학회보』 46집 4호, 73-99.

- \_\_\_\_\_. 2012b. “19대 총선과 정당체제 전망: 연합 정치의 효과.” 『의정연구』 18집 2호, 65-94.
- 조성대. 2013.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후보 현상과 선거연합에 관한 연구.” 『선거연구』 3권 1호, 73-107.
- 조성대 · 홍재우. 2012. “연합정치의 비교정치적 맥락과 한국적 수용.” 『역사비평』 98호, 24-56.
- 진영재. 1999.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 계산법의 문제점: 정당연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327-341.
- 한상익. 2012. “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시론적 연구: 선거구 경쟁 조건, 선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집 1호, 55-77.
- 홍재우. 2012. “선거제도와 연합정치: 이론, 원칙 그리고 쟁점.” 『선거연구』 2권 2호, 87-126.
- 홍재우 · 김형철 · 조성대.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보』 46집 1호, 89-112.
- Austin-Smith, David and Jeffrey Banks. 1990. “Stable Portfolio Alloc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891-906.
- Axelord, Robert. 1970. *Conflict of Interest: A Theory of Divergent Goals with Applications to Politics*. Chicago: Markham.
- Baron, David P. and John A. Ferejohn. 1989. “Bargaining in Legislatur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181-1206.
- Blais, André and Indridi H. Indridason. 2007. “Making Candidates Count: The Logic of Electoral Alliances in Two-Round Legislative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9. No. 1, 193-205.
- Burton, Michael, Richard Gunter and John Higley. 1992. “Introduction: Elite Transformations and Democratic Regimes.” In John Higley and Richard Gunther, eds. *Elit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1-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oll, Royce and Gary W. Cox. 2007. “The Logic of Gamson’s Law: Pre-election Coalitions and Portfolio Allo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 No. 2, 300-313.
- Cheibub, José A. 2002. “Minority Governments, Deadlock Situation, and the Survival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 No. 3, 284-312.
- Cheibub, José A. and Fernando Limongi. 2002. “Democratic Institutions and Regime Survival: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Democracies Reconsidered.” *Annual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151-179.
- De Swaan, Abram. 1973. *Coalition Theories and Cabinet Formation: A Study of Formal Theories of Coalition Formation Applied to Nine European Parliaments after 1918*. Amsterdam: Elsevier.

- Debus, Marc. 2007. *Pre-electoral Alliances, Coalition Rejections, and Multiparty Governments*. Baden-Baden: Nomos.
- Diermeier, Daniel, Hülya Eraslan, and Antonio Merlo. 2003. "A Structural Model of Government Formation." *Econometrica* 71. No. 1, 27-70.
- Dodd, Lawrence C. 1976. *Coalitions in Parliamentary Govern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verger, Maurice. 1959.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2.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Gamson, William A. 1961a. "A Theory of Coalition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No. 6, 373-382.
- \_\_\_\_\_. 1961b. "An Experimental Test of a Theory of Coalition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No. 7, 565-573.
- \_\_\_\_\_. 1962. "Coalition Formation at Presidential Nominating Conven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No. 2, 157-171.
- Golder, Sona Nadenichek. 2005. "Pre-electoral Coal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Test of Existing Hypothesis." *Electoral Studies* 24. No. 4, 643-663.
- \_\_\_\_\_. 2006. *The Logic of Pre-Electoral Coalition Formation*. Columbus,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Gschwend, Thomas and Marc Hooghe. 2008.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An Experimental Study on Voter Responses to Pre-electoral Coali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7. 556-577.
- Hanley, David. 1999. "Compromise, Party Management and Fair Shares: The Case of the French UDF." *Party Politics* 5. No. 2, 171-189.
- Hoffmann-Lange, Ursula. 1986. "Changing Coalitional Preferences among West German Parties." In Geoffrey Pridham, ed. *Coalitional Behaviour in Theory and Practice*, 45-7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r, Michael. 1986. "Between Theoretical Elegance and Political Reality: Deductive Models and Cabinet Coalitions in Europe." In Geoffrey Pridham, ed. *Coalitional Behaviour in Theory and Practice*, 32-4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r, Michael and Kenneth A. Shepsle. 1990. "Coalitions and Cabinet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873-880.
- Mitchell, Paul. 1999. "Government Formation: A Tale of Two Coalitions." In Michael Marsh and Paul Mitchell, eds. *How Ireland Voted 1997*, 243-263. Colorado: Westview.

- Riker, William H. 1962.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alfeld, Thomas. 2000. "Germany: Stable Parties, Chancellor Democracy, and the Art of Informal Settlement." In Wolfgang C. Müller and Kaare Strøm, eds. *Coalition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32-8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an, Alfred C. 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øm, Kaare and Jørn Y. Leipart. 1993. "Policy, Institutions and Coalition Avoidance: Norwegian Governments, 1945~199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No. 4, 870-887.



ABSTRACT

---

## An Analysis of the Limitations and Reclassification of Electoral-Coalition Studies, and the Conduct of a Meta Theoretical Trial to Reconstruct the General Theory on Electoral Coalition

Byungkee Jung |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reclassified the studies of electoral coalition into political-institution approach, voter approach, or coalition actor approach according to their methods of approaching analysis objects and reconstructed them by investigating their limitations. The political-institution approach focuses on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 form and electoral system; the voter approach revolves around support structure of voters; and the coalition actor approach addresses social existing form, free will, and behavior of coalition actors.

The article divided the objects to be studied by the analysis of electoral coalition into the character and results of electoral coalition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electoral coalition, and presented them respectively. The character and results of electoral coalition include the formation or promotion, the avoidance or dissolution, intensification, and the effect of electoral coalition.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electoral coalition consist of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form and electoral system,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 and multi-dimensionality of cleavage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actoral factors such as the social existing form of actors and the purpose of electoral coalition,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actors.

**Keywords:** theory of electoral coalition, political-institution approach, voter approach, coalition actor approach, coalition politics